

# 2005년 1~9월 국내주류 출고동향

리 주류1팀

## 1. 개요

2005년도 3/4분기까지 국내주류업계는 전반적인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주류출고량은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국내주류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소주, 맥주, 위스키 중 소주와 맥주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한 반면 위스키는 감소하였다. 2/4분기에 들어서는 1/4분기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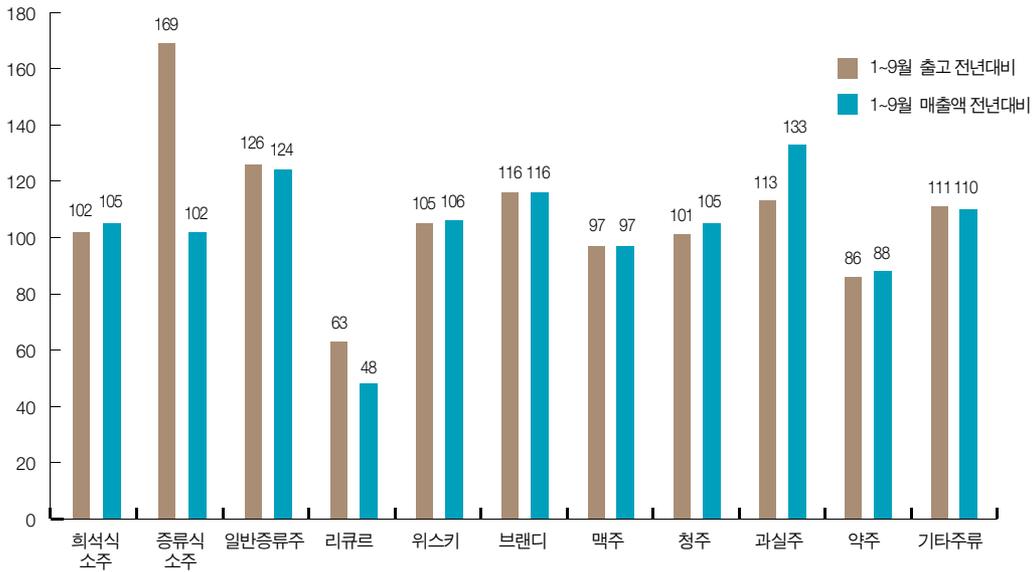
리 소주와 맥주가 1~3% 감소로 반전된 반면 위스키는 소폭 출고량이 증가하였다. 3/4분기 역시 경기체감 지수가 여전히 예전수준으로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주와 위스키는 약간 증가하고 맥주는 2005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4분기까지 주종별 출고량은 맥주가 3.01%, 리큐르가 36.9%, 약주가 13.69% 감소하였으며 희석식소주는 2.17%, 위스키는 4.54%, 과실주는

〈표1〉 2005년 1~9월 주류출고 현황표

※ 수입주류제외

주류별	구분	1~9월					
		출고수량(kt)			총매출액(백만원)		
		2004	2005	전년동기대비(%)	2004	2005	전년동기대비(%)
합 계		2,318,231	2,293,954	98.95	5,193,075	5,210,238	100.33
증류주	계	884,071	902,673	102.10	2,214,316	2,300,392	103.89
	희석식 소주	864,289	883,053	102.17	1,804,034	1,889,664	104.75
	증류식 소주	68	115	169.12	529	538	101.70
	일반 증류주	5,930	7,476	126.07	12,221	15,146	123.93
	리큐르	5,799	3,659	63.10	43,797	21,109	48.20
	위스키	7,823	8,182	104.59	348,663	368,070	105.57
발효주	브랜디	162	188	116.05	5,072	5,865	115.63
	계	1,432,367	1,389,292	96.99	2,973,559	2,904,143	97.67
	맥주	1,381,884	1,340,281	96.99	2,726,070	2,652,820	97.31
	청주	20,657	20,771	100.55	84,041	88,394	105.18
	과실주	9,293	10,518	113.18	42,875	57,018	132.99
기타주류	약주	20,533	17,722	86.31	120,573	105,911	87.84
	기타주류	1,793	1,989	110.93	5,200	5,703	109.67



〈그림 1〉 주류별 전년대비 출고 현상률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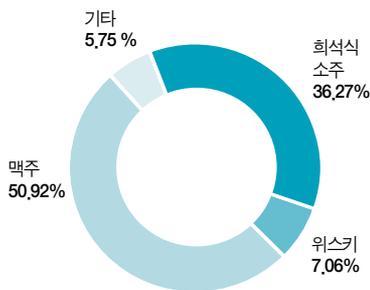
13.18%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내주류는 일반 서민층에서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는 특징이 있으나 주종별 출고량은 경기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국내 내수경기회복도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도 주류출고량은 전년대비 1~2%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주종별 동향

### 가. 소주

타주종에 비해 가장 가격이 저렴한 소주는 대표적인 서민주로서 가장어려울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특징으로 인해 지난 3/4분기까지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전년대비 2.1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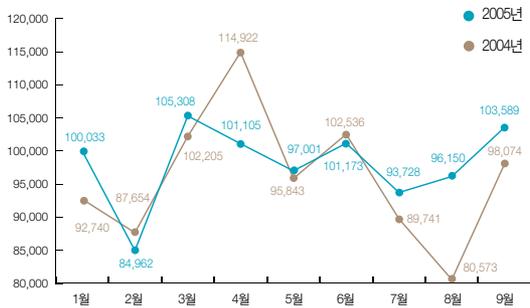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명절성수기, 신학기의 시작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출고량이 2.73% 증가하였다. 2/4분기 출고량도 전년도 4~5월에 걸친 소주가격인상으로 인한 가수요로 인해 출고량이 늘어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2/4분기 출고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에도 소주의 출고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주업체가 진로의 행방이 결정이 됨에 따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4분기에도 이와 같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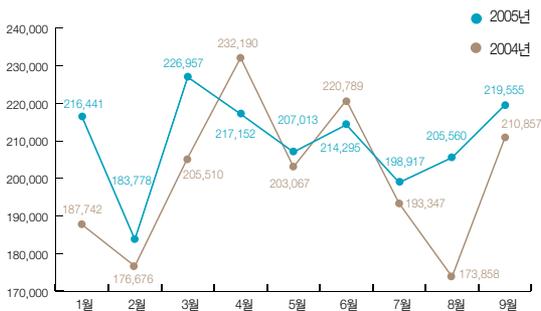
2005년 1-9월 매출액 점유비

〈그림 2〉 주류별 매출액 점유비 비교(%)

가세를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대비  
1~2%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 2005년 1~9월 소주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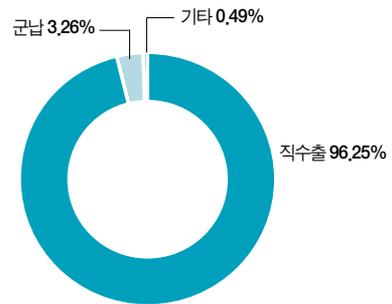
〈그림4〉 2005년 1~9월 소주 월별 매출액 변동추이(백만원)

3/4분기까지 소주출고량 중 면세주의 96.25%가  
수출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  
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0.12% 감소하였다. 이는 소  
주 수출량의 92.9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도  
소주 수출량은 소폭감소 또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2005년 1~9월 소주 면세주 출고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출고수량(1~9월)			출고금액(1~9월)		
	2004	2005	전년대비	2004	2005	전년대비
합계	66,471	66,505	100.05	107,444	93,480	87.00
직수출	64,087	64,011	99.88	104,820	90,570	86.41
군납	2,014	2,087	103.62	1,298	2,372	182.74
기타	370	407	110.00	1,326	538	40.57



〈그림5〉2005년 1~9월 소주 면세주 출고 점유비(%) 현황

## 나.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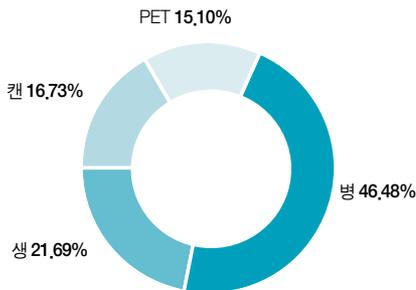
맥주는 주류 중에서 기온변화에 가장 민감한 주  
류일 뿐만 아니라 경기변화와 소비량 변화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주류로서 계속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3/4분기까지 전년대비 3.01%  
감소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작년 12월부터  
이어지는 출고부진이 계속되고 계절적인 비수기임  
에도 불구하고 출고량이 0.61%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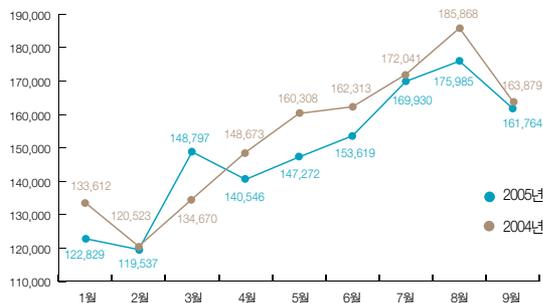
2/4분기에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인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나 계속이어 지는 경기불  
황과 6월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출고량이 3%이  
상 감소하였다. 3/4분기에도 맥주업계에서 소형

PET맥주를 출시하고 성수기 소비촉진을 유도하였으나 계속 이어지는 여름철 잦은 흐린 날씨와 주 5일근무로 인해 전년대비 출고량이 감소했다. 따라서 4/4분기에도 맥주의 계절적인 비수기를 감안한다면 출고량이 증가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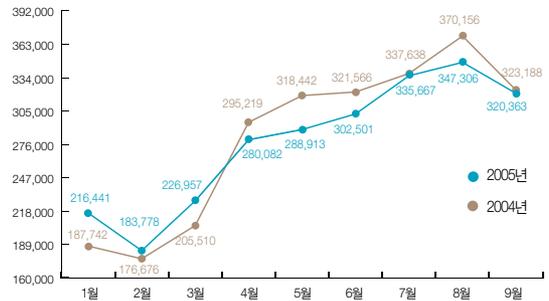
맥주의 용기별 출고량은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가정에서 음용 후 남은 맥주의 보관이 용이한 PET(피쳐)의 장점으로 인해 선호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3/4분기까지 PET의 시장점유율이 1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병입맥주와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6〉2005년 1~9월 용기별 점유비



〈그림7〉2005년 1~9월 맥주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비교(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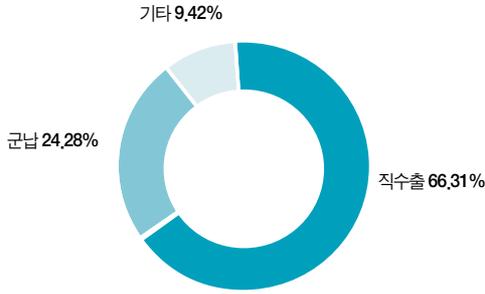
〈그림8〉2005년 1~9월 맥주 월별 매출액 변동추이 비교(백만원)

맥주의 면세주류는 3/4분기까지 수출이 66.31% 군납이 24.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맥주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3.06% 감소된 반면 군납맥주는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29% 감소되었다. 이는 맥주의 수출국 중 일본의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37.12%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맥주는 주로 수출국 대부분이 동남아시아로써 홍콩 42.67%, 일본 22.58%, 대만 6.95%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3〉2005년 맥주 면세주 출고 현황

단위: kt,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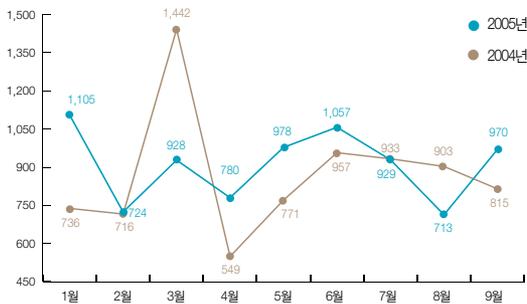
구분	출고수량(1~9월)			출고금액(1~9월)		
	2004	2005	전년대비	2004	2005	전년대비
합계	71,839	68,758	95.71	65,725	60,595	92.19
직수출	49,838	45,590	91.48	40,781	36,002	88.28
군납	14,520	16,693	114.97	16,037	18,120	112.99
기타	7,481	6,475	86.55	8,907	6,473	72.67



〈그림9〉맥주 면세주 1~9월 출고점유비(%) 현황

### 다. 위스키

위스키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2004년도에 실시된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금지법 발효등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증가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05년도에는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지난 3/4분기까지 4.59% 증가하였다. 위스키업체는 4/4분기에도 소비촉진을 위해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판촉 및 마케팅이 예상되는 가운데 4/4분기 출고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5~8%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0〉2005년 1~9월 위스키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비교(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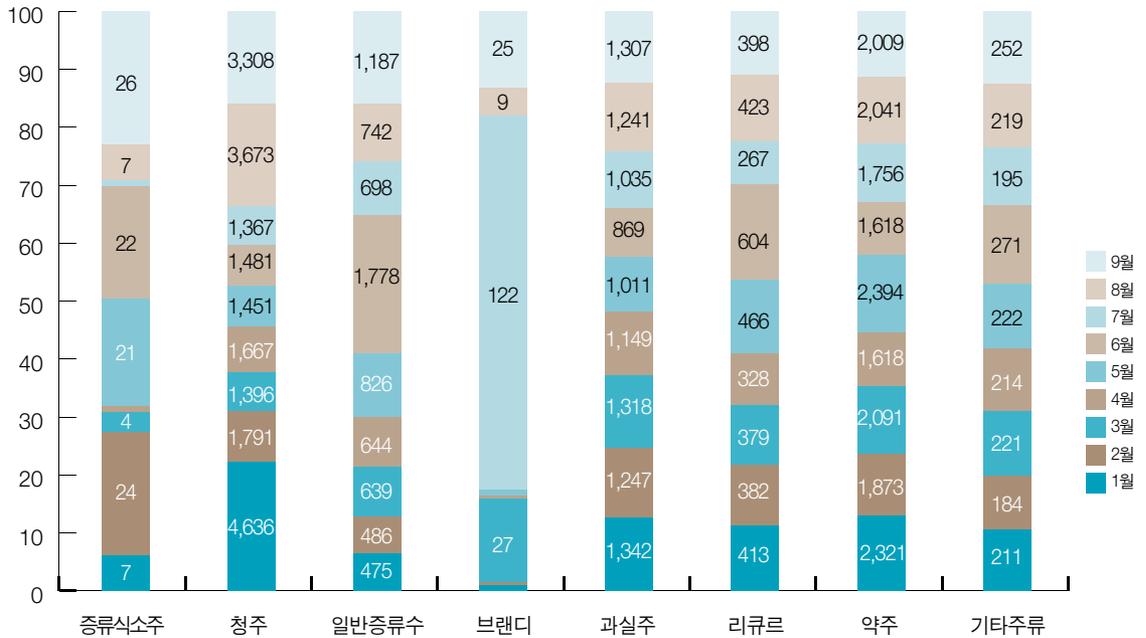


〈그림11〉2005년 1~9월 위스키 월별 매출액 변동추이 비교(백만원)

### 라. 기타주류

2005년 3/4분기까지 기타주류 중 일반증류주(26.07%)와 과실주(13.18%)의 출고량이 증가 하였다. 일반증류주가 26.07% 증가 하였는데 이는 해태엔컴퍼니가 주종을 변경하여 출시한 담금세상(리큐르)과 참순(500ml)에 따른 영향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출주(스미노프보드카)가 증가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출고량이 증가하였다.

일반증류주와 반대로 리큐르의 경우 주종변경(과실주)으로 인해 36.9% 감소되었다. 다만 과실주의 경우는 포도주가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출고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보해의 과실주(복분자주)의 영향으로 출고량(13.18%증가)이 증가 되었다. 4/4분기에도 이와 같은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약주의 경우는 2004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에서는 기존제품의 리뉴얼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005년도 3/4분기까지 출고량이 13.69% 감소되었다.



(그림12) 2005년 1~9월 기타주류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비교(kt)

### 3. 전망

2005년 국내 주류시장은 당초 내수경기의 회복기대 속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4분기까지 주류 출고량이 전년대비 1.05% 감소된 것을 볼때 4/4분기에도 이와같

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종별로 소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주의 경우 1~2%, 맥주는 -3%, 위스키는 5~8%정도 증가가 예상된다.